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오인영	면담자	문성예		
면담장소	학산지속발전협의회 사무실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0월 16일(수)	회차	1	시간	55분 04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56				
구술 개요	승기천은 평소에는 물이 많지 않은 작은 개천이었음. 60년대에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국민주택이 있었음. 전과 달리 복개 후 물이 역류하여 넘치게 됨. 승기천은 원래 물이 조금씩만 흐르는 곳이었음. 수봉산은 판자촌이 있는 허허벌판이었음. 수봉산의 물은 석바위 쪽으로 많이 흘러감. 주안2동이 개발로 헐리기 전 기록을 남기지 않아 후회됨. 개발보다는 있는 집을 잘 보수해서 사용했으면 함. 80년대 말이 되어서야 골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함.				
주요 색인어	승기천, 개천, 독정이, 수봉산, 승학산, 동양장사거리, 개울, 새한아파트, 미꾸라지, 국민주택, 용현시장, 복개, 수봉공원, 원인재, 삭막, 굴포천, 판자촌, 화장터, 보건소, 신기시장, 인하대, 장화, 개발, 토박이, 역사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승기천에 대한 기억			00:00:00~ 00:06:06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학교에 다니기 위해 64년에 인천에 옴. - 독쟁이(독정이)고개, 수봉산, 승학산에서부터 흐른 물이 동양장사거리(승기사거리)에서 합쳐져 큰 개울을 이룸. - 비가 많이 올 때는 용일초 뒤 당면공장(새한아파트 자리) 앞에서 미꾸라지를 잡기도 함. -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는 물이 조금씩 흘러감. - 70년대 말 도로가 생기면서 수봉산 물이 독정이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됨. - 승기천은 천보다는 흙과 수풀이 있는 개울이었음.					
2. 60년대 국민주택			00:06:07~ 00:07:53		
- 똑같은 모양으로 지은 단층 국민주택 7채가 있었음. - 용현시장 들어가는 길의 농협, 주차장이 있는 블록에 위치했음. - 판잣집들을 개발하자 사람들이 독정으로 밀려와서 살게 된 것. - 70년대 말, 국민들이 용현1.4동 주민센터가 있었던 언덕에 집을 다시 지음.					
3. 승기천에서의 에피소드 & 복개와 범람			00:07:54~ 00:09:00,		
-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물로 미꾸라지를 잡기도 함.					

-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었다가 쭉 빠져버렸음. 홍수나 물난리가 나지는 않았음. - 동양장사거리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은 복개 이후임. - 개울 자체는 좁았지만 (주변이) 넓어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를 데가 있었음. - 당시에는 복개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음. - 70~80년대만 해도 주변 환경보다는 사람 얼굴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음.	00:10:44~ 00:15:04	
4. 승기천의 복원 - 원인재에 있는 개천은 과거 염전을 공단으로 조성하면서 독을 쌓아 넓은 편. - 승기천을 개방하려면 물을 끌어와 수봉공원부터 내려보내야 하는데 쉽지 않음. - 도시가 삭막해서 승기천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함. - 비가 올 때만 물이 많아졌던 것을 천이라고 하는 것이 답답함. - 현재 물이 범람하는 것은 복개되어 물이 빠지지 못하고 역류하기 때문. - 승기천의 원천인 수봉산도 울창하고 깊은 산이 아님. 허허벌판에 판자촌이 있는 곳이었음.	00:15:05~ 00:23:19	
5. 인천 물줄기의 흐름 - 동양장사거리(승기사거리) 진흥아파트 자리는 과거 화장터였음. - 과거 남구청 자리였던 보건소 일대에 산이 있어 수봉산의 물이 대부분 석바위 쪽으로 흘러감. - 승학산의 물은 쌍용아파트, 진흥아파트, 동아아파트가 있는 신기시장 일대로 흐름. - 나머지 물은 관교동에서 연수구 쪽으로 빠져 연수구의 물길이 클 수밖에 없음. - 남촌동은 물을 매꾼 자리가 아니라 과거 호박밭이 있던 곳. - 인하대로 가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했음. - 용현성당 일대는 공동묘지였는데 이후 아파트가 들어섬.	00:23:20~ 00:29:35	
6. 변화했던 인천의 지역들 - 인천에는 애관극장, 동방극장, 미림극장, 오성극장, 현대극장, 인천극장, 한일극장, 시네마극장, 중앙극장 등이 있었음. 한일극장은 용일시장 안에 위치했음. - 중구는 당시 인천시의 중심으로 현재 중구청 자리가 과거 시청 자리. - 여주, 이천의 모래가 제물포 남부역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로 인해 미추홀구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생김.	00:29:36~ 00:32:19	

7. 변화하는 미추홀구		
- 승기천 사진을 따로 찍은 것은 없음. - 비가 온 뒤 물을 타고 올라온 미꾸라지를 잡으러 아이들을 데리고 감. - 개발로 헐려버린 주안2동 지역을 다시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후회됨. - 용현1.4동은 과거 판자촌으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물도 많이 흐르지 않았음.	00:32:20~ 00:36:20	
8. 미추홀구에 대한 바람		
- 55년 가량 미추홀구에 살고 있는 토박이. - 미추홀구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음. 주민등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일 뿐. - 개발보다는 있는 집을 잘 보수해서 사용했으면 함.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기존 주민들은 떠나버리기 때문. - 역사를 보존하는 다른 도시와 달리 건물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애처로움. -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민간주택에서 사는 것은 불편함이 있음.	00:36:21~ 00:41:06	
9. 마무리	00:43:49~ 00:44:41,	
- 60년대에는 아이들 교육하고 먹고 살기에 바빴음. - 80년대 말이 되어서야 골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함.	00:49:53~ 00:50:31	